

글자 크게·속도는 천천히… 고령층 ‘배려 금융’의 새 모델

은행 지점의 재구성

우리銀 시니어플러스 영업점

전국 시니어점포 3곳 운영
고령 고객 비중 60% 육박
ATM 끝씨 2배 확대 적용
소상공인센터 1곳 병행 운영

상점은 많지만 한산한 거리에 유독 어르신이 모여드는 곳이 있다.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을 기다리다가 들르고, 장보다가 들르는 우리은행 시니어 플러스 화곡 지점이다.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지난 14일 오후 3시 우리은행 시니어 플러스 화곡지점의 문을 열자마자 직원 은 말했다.

모든 것이 컸다. 상담 차례를 알려주는 번호표시는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번호가 바뀔 때마다 직원은 크게 번호를 부르며 고객을 상담창



우리은행 화곡동 시니어플러스 영업점.

구로 모셔갔다.

큰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시니어 이용이 많은 만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글자도 모두 컸다.

김모(68·남)씨는 “아직 ATM 이용을 어렵다고 느낀 못했다”며 “글자가 크고 누르기 쉬워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3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효심영업점 ‘화곡동 시니어 플

러스 영업점’을 신설했다. 1호 동소문 시니어 플러스, 2호 영등포 시니어 플러스에 이은 3번째 영업점이다.

효심영업점은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큰글씨와 쉬운용어로 상담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히 금융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라 고령 고객이 모여 대화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니어층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취약한 만큼 직원들이 보다 세심하



상담 창구 옆에있는 사랑채 모습.

/나유리 기자

잘하고 대응한다.

상담창구 옆에 있는 사랑채와 우리마루에는 어르신들의 모임을 비롯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 바독판이 마련돼 있었다.

은행업무를 보러온 양모(70·여)씨는 “한여름에 너무 더울때는 은행에 와 쉬곤 했다”며 “지금도 은행업무를 보고나서 종종 있다가 가곤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장소도 마련됐다.

영업점이 화곡 중앙 골목 시장에 마련돼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커뮤니티 공간이 별도로 조성돼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운영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화곡동은 고령층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인근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 상권도 있다”며 “어르신 고객에게 특화된 금융서비스 교육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상생 은행 영업점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화로 은행 업무를 더 쉽고 빠르게 볼 수 있게 된 시대. 우리은행은 시니어층의 금융접근성이 약화된 점에 집중해 시니어 플러스 영업점을 만들고 있다. 사라지는 창구 기능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를 주인공으로 둔 실험이다. 이곳에는 속도를 높이는 기술 대신 고객의 속도에 맞추며, ‘배려’라는 금융의 본질을 다시 세우려는 포석이 깔려 있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내년 보험업계 ‘수익성 방어’ 총력 예상

금리 하락기 자본 부담 심화 생보·손보 K-ICS 관리 압박

내년 보험산업의 키워드로 ‘성장’보다 ‘자본’이 꼽힌다. 성장률은 낮아지고 자본여력은 금리 하락과 리스크 지표에 민감해지면서 업계의 최우선 과제가 수익성 방어와 요구자본 관리로 모아진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오는 2026년 전체 보험료 증가율을 2.3%(약 265조원)로 제시했다. 생명보험은 1.0% 증가에 그치고 손해보험은 3.5% 상승 수준이다. 포트폴리오는 보장성·장기 중심의 ‘느린 성장’이 이어진다. 숫자는 늘지만 돈 버는 걸은 방어형으로 바뀌는 셈이다.

자본 측면의 압박은 더 선명하다. 보험연구원은 내년 지급여력비율(K-ICS)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봤고 금리가 100bp(1bp=0.01%포인트) 하락할 경우 생보 -12.5%p, 손보 -9.1%p의 민감도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시나리오 밴드도 생보 160~181%, 손보 171~200%로 관

리 필요성이 커진다. 채권값은 오르나 자본은 얇아질 수 있다는 ‘금리 인하의 역설’이 내년 자본관리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도 방향을 같이한다. 금리 하락기에 중소형 및 경과조치 적용사 취약성이 크다는 점을 짚어 공동재보험 등 자본관리 수단을 상시화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기본자본 중심의 규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자본구조 자체를 ‘버틸 수 있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현장의 수익성 잣대도 거칠어졌다. 손보는 2025년 상반기 보험손익이 전년 대비 급감했고 CSM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예실차·손해율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요구자본·자산부채관리(ALM)·헤지로 ‘자본 방어 라인’을 두껍게 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거시·정책 변수도 ‘수익성 방어’ 기조를 뒷받침 한다. 2026년 국내외 경기는 완만한 인하 기조 속 저성장·저금리·불확실성이 이어지고 금리 하락 폭도 제한

적일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성장 속도’보다 ‘자본의 질’과 ‘리스크 탄성’이 기업가치를 좌우한다.

영업 측면에선 채널 리셋이 중장기 게임체인을 예고한다. 수수료 7년 분급·비교공시·GA 규율 강화 등 제도 변화는 단기 충격을 제한하면서도, 유지율·품질 중심으로 영업 관성을 바꾸는 방향이다. 독립법인대리점(GA) 의존도가 큰 회사일수록 신계약 둔화·이탈 리스크를 선제 관리해야 한다.

운용환경의 또 다른 복병은 환헤지 비용이다. 원·달러 변동성이 확대되며 외화자산(생·손보 합계 158조원대)의 헤지 비용이 수익성을 압박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단기 스왑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사는 특히 타격이 클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2026년 지급여력비율(K-ICS)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완만한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요구자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레이만 와이츠 입면 디자인.

/삼성물산

삼성물산, 7987억 규모 대교아파트 수주

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 1호 사업
지하 6층~지상 49층 총 4개동 조성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재건축을 수주했다. 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 가운데 1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대교아파트를 선점한 만큼 추가 수주도 공략할 계획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전일 열린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총 4개동, 91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7987억원 규모다.

대교아파트는 한강부 입지에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5·9호선 여의도역, 9호선·신림선 셋강역 등이 모두 가까운 트리플 역세권이다. 더현대 서울과 IFC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도보권에 있다. 여의도 초·중·고 등 우수한 학군에 여의도 한강공원, 셋강생태공원 등 친환경 인프라까지 갖춰 여의도 일대에서도 핵심 입지로 손꼽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조합 설립 이후 7개월 만에 정비계획 고시, 19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등 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1팀장(상무)은 “여의도 최초 레이만 단지의 상징성을 고려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사업조건을 담았다”며 “여의도 1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인 만큼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초 타이틀이 되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레이만 와이츠(YTTZ)’를 제안했다. ‘한국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여의도(Yeouido)의 입지적 위상을 기반으로 글로벌 트렌드 세터(Trend-setter)와 진정한 쉼(ZEN)의 의미를 더해 한강 최정상(Top-end)의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단지 동측과 서측 주거동 최상층(46층)에 조성되는 선라이즈·선셋 라운지는 각각 일출과 일몰에 최적화된 시야각 확보와 조망형 통창 등을 통해 한강의 낮과 밤 풍경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한강변 입지의 장점을 살려 단지 레벨을 상향해 설계했다. 기존 조합원만의 한강 조망 623세대를 709세대로 대폭 늘렸으며, 공공보행 구간과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공간에는 입주민 전용 지하 공간·로비·테마정원 등 프라이빗한 시설들이 마련된다.

대형 아트리움으로 지하1~2층에 조성되는 약 4650평(세대당 5.1평)의 커뮤니티는 여의도 최대 규모다. 갤러리·피트니스·골프·스파 등 예술과 건강, 휴식이 어우러진 총 68개의 프로그램을 갖춘 초대형 복합문화공간이 마련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화손보 ‘2025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레스트 인 오빗’ 디자인진흥원장

한화손해보험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식이다.

한화손보의 수상작인 ‘레스트 인 오빗(Rest in Orbit)’은 보험 상품을 넘어, 고객의 삶에 진정한 돌봄과 공감을 전하고자 기획된 브랜드 키트다. ‘일상 속 고요한 쉼’을 주제로 바쁜 현대 여성에게

사려 깊은 휴식과 성찰의 순간을 제공하고 키트를 여는 행위 자체를 자신만의 안식을 찾는 상징적 경험으로 설계했다.

조화, 균형, 지속적인 돌봄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형상화한 패키지 뚜껑은 한국 전통 소반에서 착안한 트레이로 변형이 가능해 ‘마음챙김 가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세라믹 찻잔과 팔로산도 인센트레이가 더해져 휴식 공간을 완성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여성 웰니스 리딩 파트너라는 브랜드 철학을 직접적인 고객 경험으로 확장하고자 브랜드 키트를



한화손해보험 ‘2025 굿디자인 어워드’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수상 이미지. /한화손해보험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디자인 경험을 통해 ‘여성을 가장 잘 아는 보험사’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